

나주시, 지역 문화유산 활용 '금성별곡' 공연 연다

24일 향교 명륜당 앞마당 일원서 국가유산청 향교·서원 유산 활용 굽은소나무학교 학생 탈춤 공연 전통문화 이음 양성 프로그램 등

나주시가 국가유산청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일환으로 향교일원에서 가무극 '금성별곡'을 선보인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6시 40분부터 원도심에 위치한 나주향교 명륜당 앞마당에서 '금성별곡' 공연을 연다.

'금성별곡' 공연은 국가유산청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국가유산주간(10월11일-11월3일)에 전국에서 운영되는 지역 유산축전이다.

국가유산주간은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일상에 스며들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17일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 활용사업 재도약과 활용사업 대국민 브랜드 인지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유산축전이다.

가무극 '금성별곡' 참여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블로그나 061-334-2338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연은 1480년(성종 11년) 나주향교 유생 10명이 동시에 소과에 급제한 감격을 박성건 교수가 경기체가 형식으로 만든 작품을 나주향교 브랜드 작품으로 창작한 공연이다. 나주시립국악단 운



중호 감독이 총지휘를 맡아 고조너한 원

도심의 가을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궁상각치우 아해' 학생 12명이 사물과 탈춤 공연으로 참여한다.

'궁상각치우 아해'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에서 2023년부터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춤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통문화 이음 양성 프로그램이다.

오인선 나주향교 전교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18일부터 실시하는 국가유산주간 활용사업에 우리 나주향교도 가무극 '금성별곡'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밤이 더욱 아름다운 나주향교에서 545년 전 나주를 빛냈던 유생들을 음악과 춤, 극으로 만나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배포 함평군, 영어 등 5개 언어

함평군이 글로벌 관광객 맞이를 본격화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알찬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배포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총 5개 언어로 제공되며 주요 관광지, 축제 및 행사, 숙박시설, 식당, 교통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함평군은 매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 특히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축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함평을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게 됐다.

이번 안내지도는 주요 관광지 뿐만 아니라 함평엑스포공원의 다양한 전시관과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 함평의 매력을 더욱 깊이 알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당일치기, 1박 2일, 가족 단위 여행 등 맞춤형 추천 코스도 안내해 만족도를 높였다.

관광안내지도는 관광안내소와 주요 관광지, 교통거점에 배포되며 함평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새롭게 개편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여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과 홍보를 통해 함평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확대 함평군, 12월 7일까지

함평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해 12월7일까지 8주 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확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실시되며, 콩탈곡기, 콩선별기, 양파이식기, 퇴비살포기 등 77종 166대의 농기계가 대상이다.

각 기종은 최대 3일간 임대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061-320-2502)를 통해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과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함평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국향대전 17일간 대장정 돌입 함평군, 11월3일까지 엑스포공원

함평군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함평 들녘을 물들이는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향후 17일간 대장정의 서막을 알렸다.

함평군은 21일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 개막식이 지난 18일 오후 함평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주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의 개막식은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담양군수, 채장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과 함평군의회의원, 출향 향우와 함평 축제관광재단 임원, 군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은 여성 전자현악그룹 '일렉티아'의 식전 공연과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홍보영상으로 시작됐으며 한국무용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짚은 감각과 시선으로 풀어낸 '비슬무용단'이 공식 행사의 출발을 알렸다.

이상의 군수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베트남 달맞이꽃 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지난 8월 글로벌 축제 교류 협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며 양 지자체가 함께 커피나무 심기 퍼포먼스를 진행, 개막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나무 심기 퍼포먼스를 위해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의장, 베트남 달맞이꽃 축제추진위원회 조영광 부위원장, 베트남 한국기업인 투자협회 광주전남지부 홍현희 회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직접 공수해 온 커피나무를 함평 엑스포공원 내에 식재하며 양 지자체의 축제가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생 발전하기로 다짐했다.

축제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트롯가수 김희재, 트롯걸그룹 세컨쇼의 축하공연이 펼쳐진 후 이날 개막식이 마무리됐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의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함평 국화세상에서 가을에 열리는 크리스마스를 관광객에게 선물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모든 콘텐츠를 빠짐없이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11월3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이 고인돌축제장 내 음식부스에 다회용기 8종을 공급해 친환경 축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 고인돌축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선도

음식부스 다회용기 8종 공급

화순군이 고인돌 가을꽃 축제장 내 음식부스에 다회용기 8종을 공급해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열고 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지난 18일부터 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진행 중이다.

11월3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향토음식 부스 등에서 사용하는 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했다.

반찬 용기, 접시 등 8종의 다회용기를 공급해 회수, 세척·살균 과정을 거쳐 음식부스에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축제장에 설치된 다회용기 반환부스에 사용한 다회용기를 직접 반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을 몸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이번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만들기를 계기로 축제장 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친환경 축제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담양군, 독감·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상

담양군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고 18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22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항암치료 및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자와 같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 취약 시설 입원·입소

자를 대상으로도 동시 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18일부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15-2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매년 반복하고 있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어르신은 매년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을 것을 적극 권장

한다"며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